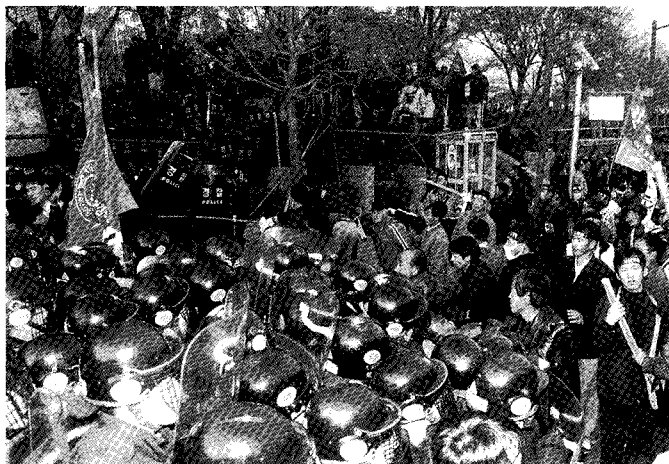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중앙연합회 박홍수 중앙회장, 이재덕 사무총장 소환조사, 재판 진행



▲ 2001년 '쌀포기정권 규탄 및 반농민적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100만 농민총궐기대회'에서 정부종합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한농연 회원들.

최근 2000년, 2001년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한농연중앙연합회 박홍수 중앙회장과 이재덕 사무총장 재판 및 소환조사가 진행되었다.

박홍수 중앙회장은 지난 3월 11일, 2001년 아산에서 개최한 쌀투쟁 선포식과 관련하여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3월 14일에는 2001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쌀 포기정권 규탄 및 반농민적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100만 농민총궐기 대회」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3월 12일에는 2000년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424호에서 1차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2차 항소심이 6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덕 사무총장은 지난 2001년 3월에 개최하였던 「한·칠레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농민대표자대회」 관련하여 2월 26일 3차 공판에 참석하였으며, 공판은 검찰측의 추가조사를 이유로 또 다시 3월 19일로 연기되었다.

박홍수 중앙회장은 「2000년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 관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이재덕 사무총장은 「한·칠레 FTA 협상 저지를 위한 농민대표자대회」 관련하여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농연 2002년 상반기 정보화 교육」 실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각 지역 정보화를 선도하는 일선 조직의 능력배양을 도모하고, 농업정보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무요원 배출을 위해 「한농연 2002년 상반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 도 연합회과 희망 시·군연합회 사무요원을 대상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서 3월 20일에서 22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기초와 인터넷 입문에서부터 홈페이지 제작까지 실무와 실습위주의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한농연의 정보화 수준을 자체 진단해보고 사무요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별 정보화를 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은 물론, 정보가공과 활용능력에 중점을 둔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한농연 정보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상반기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각 도·시군 연합회 사무요원은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정보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농연 문자메세지 서비스 개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농정개혁과 농권확보를 위해 앞장서는 한농연 소식을 일선 시·군과 읍·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회원간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한농연 소속감 제고를 위해, 3월부터 [한농연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자메세지 서비스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한농연 소식을 전달 받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농연의 각종 행사 안내와 내부 소식, 농정 대응 활동 관련 요청사항, 주요 농업동향 및 고급정보 등을 한농연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로 전국의 모든 농업경영인들이 정보격차 없는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단결되고 조직적인 농민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도 및 시·군연합회에서도 조직 활성화 및 각종 농정활동 대응 강화를 위해 문자메세지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농연중앙연합회 Tel : 02-3401-6543 사업관리실 유혜경 대리)

한농연중앙연합회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문」 부착 운동 전국적으로 전개

최근 농촌은 대외적인 개방압력과 대내적으로는 농가소득 감소, 농촌의 의료·교육·치안 등 열악한 복지수준 및 환경에 고통받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2002년 농정개혁운동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국 대규모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에 관한 취지와 한농연 요구사항을 담은 촉구문 부착운동 전개, 한농연 각 도·시·군별로 담화문 20,000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이에 각 도·시·군별로 담화문 20,000부와 현수막이 전국에 걸쳐 게재되고 있다.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경기도연합회 「시군읍면동 회장단 교육」 실시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2월 27일(수)~28일(목)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2002년도 시군읍면 회장단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농연 중앙연합회 박홍수 회장, 이인모 농협경기지역본부장, 백대식 도의회의원, 이진호 포천군수, 서장원 포천군의회의장, 도내 시군의회의원과 농축협 조합장 등 내빈과 시군읍면 회장단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유섭 경기도회장은 대회를 통해 “한농연은 농민권익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이는 “일선 회장단의 노력과 헌신의 대가”라고 평가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박홍수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한농연의 투쟁은 많은 성과와 의의를 가진다고 밝히고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등 올해도 12만 회원과 강력한 농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는 “WTO농산물협상 반대와 쌀시장 개방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개회식에서는 한농연 조직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2002년 경기농정 주요시책”(김덕영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WTO농산물협상의 동향과 과제”(이재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올해 양대 선거 후보등록, 선거운동 방법, 선거 위법사례”(강윤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회원조합 결산자료 분석방법”(정기수 경기도연합회 사무차장) 등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또한 “농민의 지방농정 참여와 지역농업 발전”이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재덕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석규 양평군회장, 오윤희 용인시회장, 한경희 광주시회장, 서장원 포천군의회 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충북도연합회 「충농연·충여농 시군임원 및 읍면회장교육」 실시

충북도연합회는 2월 27일~28일 초정 스파텔에서 「2002년 충농연·충여농 시군임원 및 읍면회장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 앞서 이홍세 충북도연합회장은 “올해 역시 농업인과 농업계에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며, 이는 이 자리에 모인 임원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바꾸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농민운동의 방향과 한농연의 역할’, ‘국제화 시대 한국농업의 방향’, ‘한농연 주요사업계획’, ‘2002년 농업정책’ 등의 특강이 있었다. 강연은 송민구

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이원중 충북도지사, 이재덕 중앙연합회 사무총장과 서규용 농림부 차관이 맡아 진행하였다.

「전북도연합회 시군임원 및 읍면동회장 교육」 예정

한농연 전북도연합회에서는 「2002년도 시군임원 및 읍면동회장 교육」을 3월 18일(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시군읍면회장을 비롯하여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라북도농업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전북도연합회는 '전북농업 발전전략 마련, WTO 협상에 따른 농업 대응책, 농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지도자로서의 기본 소양 및 조직 운영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교육을 진행하며, 강연은 안세경(전북도 농림수산국장), 황민영(전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오정례(전주시 의원), 김대욱(도연합회 회장) 등이 맡을 예정이다.

● 각 도연합회 사무요원 교육 진행

구 분	경북도연합회 사무요원 교육	전남도연합회 시군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 교육	전남도연합회 임·직원 Work Shop
교육일시	3월 5일 ~ 8일	2월 26일 ~ 27일	2월 19일 ~ 20일
교육장소	경북농업기술원	영암 월출콘도	전남도연합회 사무실
참가대상	도·시·군연합회 사무요원	시군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	도연합회 임원 및 직원
교육내용	- 시군 실무자로서의 자세와 역할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교육	- 2002년 농업정세 전망과 전남농업의 대응전략과 한농연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 농업정세 전망과 2002년도 전남도연합회 중점사업

성주군연합회 「협동조합 이·감사 교육」 실시

한농연 성주군연합회는 지난 2월 28일 성주읍회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의 협발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회원조합의 전·현직 이·감사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협동조합 개혁의 중요성' (최대회 협동교육연구소장), '협동조합 발전 방안' (장종익 협동조합연구소장)과 '한농연 2002년 사업계획' (중앙연합회 이재덕 사무총장) 등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은 저녁 6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한농연이 협동조합 개혁의 선봉에 서기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성주군이사사회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합장 선거 소식



▲ 2001년 개최되었던 농업경영인 조합장 협의회 총회에서 한농연 출신 조합장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농협중앙회는 3월 11일 현재 전체 1,381개 회원조합 중 1,143개 조합의 선거가 진행되어 제4기 조합장 선거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2월 8일 ~ 3월 8일 한달 동안 8개 조합 조합장 선거에 5명을 당선시켜 63%의 높은 당선률을 보이는 등 4기 조합장 선거에서 한농연 출신 회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크게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작년 “쌀대란”에 있어서 조합장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회원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인식과 함께 2001년 한농연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협동조합 개혁운동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농연은 4월중 「4기 한농연 출신 농·축협조합장 당선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협동조합 개혁에 있어서 한농연 출신 농·축협조합장들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농연 출신 농·축협조합장 당선자 (2월 8일 ~3월 8일)

지역	조합	성명	연임	당선일
전북 완주	운주 농협	이 원 준	초 선	2월 8일
전북 진안	성수 농협	김 영 호	초 선	2월 15일
제주 남제주	성산 농협	현 용 행	초 선	2월 20일
충북 음성	맹동 농협	안 효 길	초 선	2월 26일
경북 성주	초전 농협	천 광 필	초 선	2월 27일
전남 진도	동진 농협	김 재 영	초 선	3월 1일



한농연 참가 단체 동향

농단협 3월 집행위원회 개최

농단협은 3월 8일 김인식 사무총장과 이재덕 한농연 사무총장 등 11개 단체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대응방안과 대선공약, 농업관련 법안 개정 추진, 한·칠레 FTA 대응 방안, 농업법률 자문기구 설치, WTO 협상 대응 방안 등이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정례모임을 갖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에 농단협 추천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하였다. 또한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각 단체별로 대선공약을 마련하고 농민단체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칠레 FTA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을 WTO 협상이후로 미루거나 협상대상국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선전을 강화 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박스에 한·칠레 FTA 반대문구를 삽입하고, 포장박스내 한·칠레 FTA 반대홍보 전단 삽입을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에 요청키로 했다. 농업관련 법안 개정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축산자조금법 등 농업관련 법안이 상반기 국회에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 방문을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제 단체와 연대활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단협, 전농 前 정광훈 의장, 배형택 국장 구속 규탄·의료보험료 인상에 관한 성명서 발표

농단협은 지난 2월 19일과 25일 전농 정광훈 前 의장 구속과 의료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농단협은 “전농 정광훈 前 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 구속에 대하여 WTO농업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분노하고 있는 농심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농민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5일 의료보험료 인상에 관한 성명에서는 의료보험 3% 이하 인상을 촉구하였다. 농단협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은 농민단체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이 무리한 의료수가 인상에서 기인한 만큼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의료수를 먼저 대폭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에 대하여 의료보험료의 인상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였다.

WTO국민연대 2002년 정기총회 개최

WTO국민연대는 지난 3월 5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200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1년도 활동결과, 한·칠레 FTA 협상동향, 제네바 WTO 농업위원회 파견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WTO협상 감시단 선전에 대해 WTO국민연대 신입집행위원장 2인과 함께 소비자,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토록 의결하였다. 한·칠레 FTA와 관해서는 한·칠레 FTA를 WTO 협상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비롯하여 선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입 집행위원장에 윤석원 중앙대 교수와 김충실 경북대 교수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건강연대 2002년 정기대표자회의 개최

건강연대는 지난 3월 8일 종로 YMCA에서 2002년도 정기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1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선전과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건강관련 정책 제시, 의료보험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의료보장 개선활동 등을 전개키로 하였다. 이 밖에 운영위원회 산하에 건강보험팀, 의역분업 평가팀, 대선팀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건강연대 조직의 강화와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농연**

3월 마지막주
~4월 셋째주
한농연 주요일정

- 3월 25일 : 한농연중앙연합회 제2차 이사회
- 3월 26일 : 경북도연합회 농·축협 이·감사 교육
- 3월 26일 : 농민단체협의회 대표자회의
- 3월 26일 : 농민단체협의회 - 농촌경제연구원 간담회
- 3월 28일 : 전북도연합회 협동조합 이·감사 및 대의원 교육(1박 2일)
- 3월 28일 : 충남도연합회 시·군회장 교육(예정)
- 3월 28일 : 한농연 지자체공명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지자체 선거 출마자 교육(1박 2일)
- 4월 중 : 4기 한농연 출신 농축협조합장 당선자 대회(예정)